

# 우리사회 지성의 눈높이는 얼마인가

출판사 자체의 기획력·전문성에 학계 성숙도가 보태져야

최용석

교수신문 학술담당 기자

출판시장에 붉은 불이 켜졌다. 이 불은 너무 강렬해, 자칫하면 활자로 된 인류의 온갖 정신과 문화의 속살들을 우리 손으로 보듬어볼 수 없게 할지도 모른다. 업살이 아니다. 두가지 점에서 그렇다.

먼저 문화의 정수리에 놓인 책에 대한 '물권저당'이 강화되고 있는 외형적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적재산권 개념의 도입에 따라 책은 이제 하나의 사유재산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을 부정할 수 없겠지만, 책에 매겨진 이러한 가치는 전통적인 책의 존재의미를 제한하거나 확장시켜버린다.

어느 경우든,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책을 만들고 보급하고, 읽고 생각하는 문화적 풍토에 틈새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속에는 책과 우리들(저자, 출판인, 독자)의 만남, 책과 책 나아가 책 이전의 무한한 사유의 정보들까지 굴절될 것이다. 로열티의 지급, 책값 인상 등은 차라리 부차적이다.

## 출판과 시장의 등가성

다음, 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함께 가는 것으로, 이미지의 범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미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글자와 글자간의 넓은 틈새를 한꺼번에 비약해버리는 그림들이다. 그것은 여운을 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달려든다. 그런 형식들로 공중전파, 비디오·오디오 매체 등과 주로 시각적으로 행동하는데 의존하는 뇌 속의 영상적 의식까지 통틀어 지칭할 수 있다.

이미지조차 글자일 수 있다. 그러나 속도에 취한 이미지들의 범람은 해변의 물결과 같지 않고 정신없이 나아가는 폭포와 같다. 시인 김수영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질주하는 것은 이미지들이며 그 폭력성이다. 그것은 한순간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으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좀더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출판시장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지적한 사정들은 출판운동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가장 정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면서, 동시에 후위에 존재하지만 언제나 전위인 읽는 사람까지 앓고 있는 몸살일 수 있다. 만일 이것이 함께 나란히 가지 않는다면, 출판의 가장 높은 수준에 놓인 학술

문화의 가능성을 온전히 파악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출판과 시장의 등가성.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학술출판이야말로 출판과 시장이 균형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은 수요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로 수요와 공급의 일치된 좌표를 그려낸다. 학술출판이란 출판과 시장의 등가성을 전제해야만 가능하다.

최근 고려대 김성도 교수가 번역 소개한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또한 아주 간단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라마톨로지》에 쏠린 옴진 사람과 읽는 사람의 반응이 상징적이며, 데리다에 주목한 출판사의 착상이 간단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반응과 착상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한몸처럼 붙어 있다. 우리는 이 둘의 이름이 전문성과 기획력이라는 것도 일찍부터 알고 있다.

학술서들의 경우 전문성과 기획력은 어느 분야도 요구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제조건은 있다. 우리 학계의 '학문성의 눈높이'와 이것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학계의 학문성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물음도 가능하지만, 우선은 '눈높이'(안목과 학문적 수준)의 질적 추위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전문성과 기획력은 책을 향해 나아가는 저자와 그리고 이들을 묶는 출판인 모두에게 요구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쓰는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미

학술출판계의 가장 큰 고민은 학술서 출판에 쏟는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성과들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그렇다고 한다. 1년에 학술도서를 20~30종씩, 많게는 40~50종씩 낸다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책은 3분의 1도 채 안된다. 그러므로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춘 책조차 별볼일 없게 구석으로 밀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대우학술총서에서 찾을 수 있다. 출판사측은 그러저러 수지를 맞추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작업에 참여한 교수들 역시 "교생은 많이 했어도, 별 성과는 없다"는 반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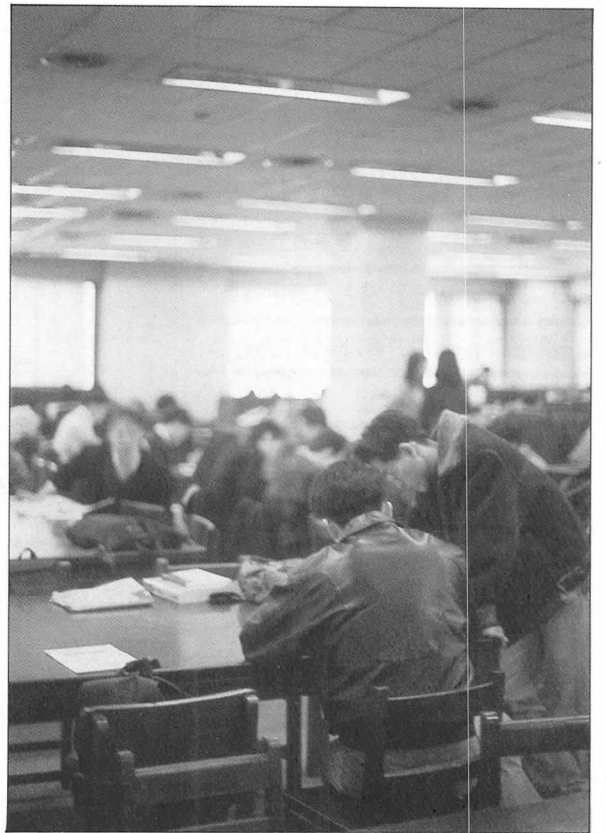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는 출판사의 기획력과 전문성에 크게 의존해왔다. 여기에 학계 전반의 눈높이가 덧붙여져야 한다. 학문의 눈높이는 읽는 사람과 저자의 문제이다. 대학에 적을 둔 연구자들로 읽는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성적 눈높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다.

한국에서의 학술출판의 가능성 혹은 한계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돼 있는 것 같다. 즉, 출판사의 사려깊은 기획과 작업에 뛰어난 저자들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의 반응이 기대치에 미달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능성의 물질적 토대를 반성케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판사의 기획력과 전문성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 기획력, 전문성에 우리 학계 전반의 '학문성의 눈높이'가 덧붙여져야 한다. 학문성의 눈높이는 읽는 사람과 저자의 문제이다. 대학에 적을 둔 연구자들로 읽는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성적 눈높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추상적 차원을 요구한다. 학술출판은 교재나 만들어 파는 알팍한 행위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선정적일 정도의 신속한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더디지만 천천히 스며들어야 한다. 그것은 순발력이 아니라 지구력을 요한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학술출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은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 언어로 된 우리 문제를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담론의 확보는 학술출판의 기본 조건이 된다. 학술출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고려할 만하다.



학술출판의 질은 그 사회 전체의 지성적 눈높이에 달려 있다.

가령, 국학관련 출판물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인식전환의 가장 큰 책임은 저자들에게서 찾아야 할 것 같다.

## '정신의 옷' 비추는 전광판

유재천 서강대 교수는 학술출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학자들의 연구열 부족, 학술출판시장의 영세성, 학계와 대학의 연구평가제도 부재, 한 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자세 부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김성재 일지사 대표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외국의 학술내용을 그대로 도용하거나 조금 손을 봐서 자신의 연구성과인 양 내놓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학술출판은 다른 출판과 달리 장기적인 전망이 요청된다. 좋게 말한다면, 그것은 헤겔, 베버, 하버마스, 퇴계나 반계 일차 텍스트를 소개하는 일이며, 동시에 《강화학 최후의 광경》(우반), 한길 그래아트북스(한길사) 등을 내놓는 작업이다. 그것은 효용성이 아니라 '합목적성' 그 자체이다. 학술출판은 우리 문화가 어떤 정신의 옷을 입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명징한 전광판이다. 싱거운 결론이겠지만 학술출판은 관계자들의 기획력과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계의 학문성의 자립도와 읽는 사람의 원심력에 달린 문제이다. ❖